

2. 용서-4. 유혹

2.4. 유혹

시작 성가:

목적:

이 시간은 나/우리부부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집중하여 나/우리부부의 삶 중에서 진실과 거짓을 알아내며, 하느님과 관계를 새롭게 점검하는 시간입니다.

안내:

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알아차리고 그 고통이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. 바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빠져 들게 하는 것이 유혹인데, 이 유혹자와 하느님을 식별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.

하느님을 우리에게 엄청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. 그런데 이 은총이 마치 아이에게 날카로운 칼을 준 것처럼 우리를 불안하게 하기도 합니다. 그 중에 하나가 하느님을 찬미할 수도 있고, 이웃을 죽일 수도 있는 우리의 혀입니다. 우리는 혀의 힘과 우리의 말 속에 잠재해 있는 선악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. 티모테오 서에서는 “그대가 지닌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. 이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일에 전념하십시오. 그리하여 그대가 더욱 나아지는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도록 하십시오.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. 이 일을 지속해 나아가십시오. 이렇게 하면, 그대는 그대뿐만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이들도 구원할 것입니다. (1티모 4,14-16)

나의 의지의 무질서함 즉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의해 흔들리거나 나의 감정(우울증, 분노, 두려움)의 지배를 받고 있거나 타성이나 습관에 의해 마비된 모습 그리고 잡다한 것들 또는 의혹 때문에 흔들리는 내 모습을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.

나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?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어떤 것인가? 이 질문에 답을 적어보는 것이 필요하다. 그리고 다음의 질문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되돌아봄이 필요합니다.

내가 한 말을 반성해 본다. 나의 말들은 축복이었나? 저주였나?
나의 삶에서 나의 말의 무질서한 면은 어떤 것인가?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겠는가?
나는 나의 삶을 축복하는 말로 습관을 만들려면 매일 매일 어떻게 실천하겠는가?

예: 칭찬, 감사, 사랑의 표현 그리고 말하기보다 듣기.

필요할 때에는 침묵하고, 말할 때에는 부드럽고 천천히 사랑스럽게 한다.

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말로 인사하고 많은 말이나 우울한 침묵을 피한다.

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“아니요” 는 “아니요” 라고 “예” 라고 해야 할 때 ” 예 “라고 말하기.

나의 느낌들을 전달하며,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을 느끼며 말하기.

성경이나 아름다운 글을 읽기.

나의 의지의 변화를 줄 행동을 목록으로 작성하고 실천하기.

구할 은총

나의 죄나 의지의 무질서함을 알아차리고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청한다.

1단계: 관찰-개인 성찰:

자료: 개인 성찰(시간 30분)

1. 나/우리부부가 겪고 있는 고통은 무엇입니까?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나/우리부부의 삶의 깊이 들어오게 되었는지?
2. 나/우리부부의 언어 습관 중에서 서로 죽이는 언어 습관이 있다면? 그리고 왜 그런 습관이 생겨났는가?
3. 나의 삶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있다면 그 영향의 정체에 이름을 붙여보면? 그리고 지금도 그런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묶여 있는 점이 있다면?
4. 나의 욕구들을 돌아보며, 그 중에서 하느님으로부터 나를 떠나게 하는 것이 있다면?
5.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은총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? 그리고 나에게 위선의 면이 있다면, 그 위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가?
6. 내가 하느님 앞에서 사랑 받는 사람으로 설 수 있다면 왜?

부부대화(20분)

2단계: 분별-성경 말씀:

개인적으로 성경 묵상(50분)

야고 1,13-18:

아무도 유혹을 받을 때에 하느님으로부터 유혹을 당하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.

각자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그 꾀에 속아 넘어가서 유혹에 빠집니다.

훌륭한 모든 것과 완전한 모든 선물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. 달라지는 법도 없고 운행하면서 어두워지는 일도 없으신 분, 광체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.

야고 3,2-12:

누가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그는 완전한 사람이라 온 몸도 다스릴 줄 압니다.

그토록 작은 불이 그토록 큰 숲을 태우지 않습니까? 혀도 하나의 불입니다. 그 혀는 우리 지체 가운데에 불의의 세계로서 들어앉아 온 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를 태우면서 스스로도 지옥 불에 타고 있습니다.

혀로써 우리는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며 같은 혀로써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들어진 인간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.

야고 4,1-10:

다툼과 싸움은 여러분의 지체들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쾌락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?

여러 분은 탐내어도 가지지 못합니다. 여러 분은 살인하고 질투해도 성공하지 못합니다.

여러 분은 청해도 받지 못합니다. 그 이유는 여러 분의 쾌락에 낭비하려고 잘못 청하기 때문입니다.

그러므로 하느님께 복종하십시오. 악마에게는 대항하십시오. 그러면 그가 여러 분을 꾀할 것입니다.

루가 12,16-21: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

“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. 곳간들을 헐어 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, 거기에 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 두어야겠다.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으니,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.’ ”

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. ‘어리석은 자야,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.

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.”

마르 7,1-23: 조상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

“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,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?” 이사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.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. ‘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.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.’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.”

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.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.”

또 이어서 말씀하셨다. “사람에게서 나오는 것,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.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, 불륜, 도둑질, 살인, 간음, 탐욕, 악의, 사기, 방탕, 시기, 중상, 교만, 어리석음이 나온다.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.”

루가 18,9-14: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

바리사이와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.

바리사이는 곳곳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. ‘오, 하느님! 제가 다른 사람들,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,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. 저는 일주일에 두 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바칩니다.’

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. ‘오, 하느님!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.’

14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.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.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.”

부부 대화(30분)

3 단계: 실행:

다음 질문 중 하나 또는 마음에 와 닿는 것을 주제로 하여 사랑의 편지를(20분) 쓰고, 부부 대화를 (15분) 한다.

공개 나눔:

(공개 나눔을 위한 질문):

1. 오늘 새롭게 발견된 나/우리 부부의 모습은?

2.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이 나/우리 부부에게 바라시는(원하시는) 모습은?